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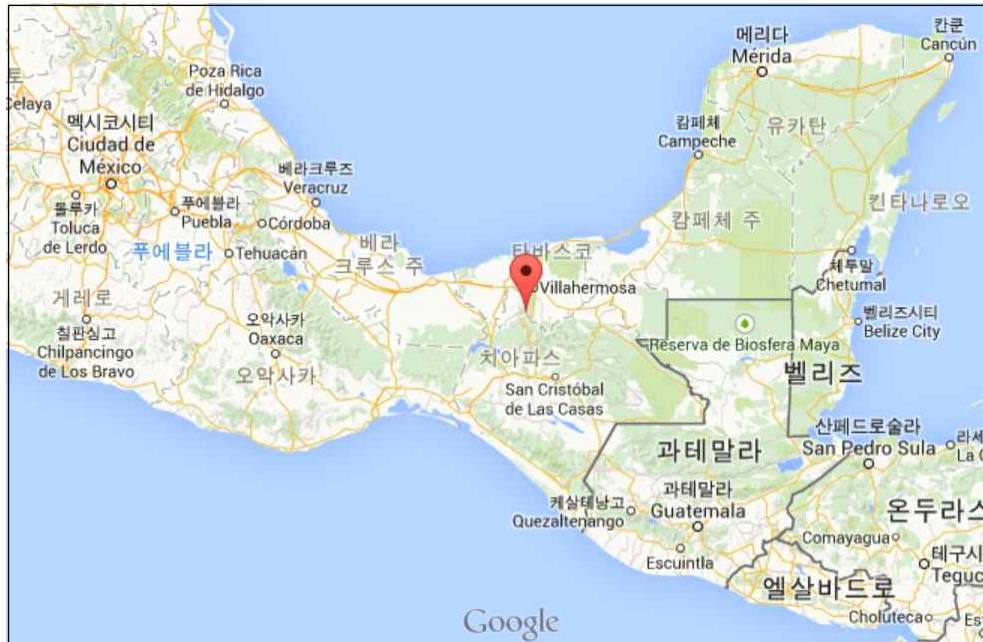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멕시코 치아파스 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교육을 생각하다

조영지

치아파스 고지대의 여름은 서늘하기만 하다. 훅훅 찌는 치아파스의 여름 공기는 스스로의 무거운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이천 미터 해발고도의 이곳에는 차마 다다르지 못한 듯하다. 냉랭한 공기에 주곡인 옥수수가 잘 자라지 않으니 고지대 사람들은 매년 여름이면 더운 저지대로 내려가 옥수수 농사를 짓는다. 8월 중순이 되자 수확 때까지는 크게 할 일이 없어 주민들도 서서히 마을로 돌아온다. 돌아온 사람들로 산 이시드로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그리고 곧 아이들과 부모들은 형형색색 정성스레 수를 놓은 전통 의상을 입어 단장하고 개학식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학교로 뚝뚝 모여든다.

필자는 2014년 여름 두 달 가량 논문 관련 현지답사의 일환으로 멕시코의 치아파스 주에 머물게 되었다. 연구 대상 지역은 치아파스의 문화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산 크리스토팔 데 라스 카사스(이하, 산 크리스토팔)였으나, 마야 문화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틈날 때마다 짬짬이 인근 마을을 방문하였다. 이 글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마을은 산 이시드로 데 라 리베르타드(이하, 산 이시드로) 마을이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이 걸어서 한 시간도 넘게 걸리는데다가, 주민 대부분이 옥수수 농사에 종사하여 관광 산업과는 동떨어져 있다 보니 외지 사람이 이 마을을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마



멕시코 치아파스 주의 산 이시드로 마을 (출처: Google map)

들은 세계 여기저기에 네트워크를 뻗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인연은 마을 주민의 자치 및 대안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마을을 방문한 이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뻗은 도움의 손길로부터 비롯되었다. 산 이시드로에서는 상호 문화주의에 입각해서 치아파스처럼 소외 받은 지역에는 더욱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공교육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9년 1월 이화여자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생들과 인솔자인 이영민 교수는 해외 답사 차 치아파스에 왔다가 사회인류학연구센터(CIESAS)의 마리아 엘리나 교수의 소개를 받아 산 이시드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때의 인연을 계기로 산 이시드로 마을의 에밀리아노 사파타 자치 학교가 자립할 때까지 매년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마을을 방문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나는 이왕 치아파스에 온 김에 한국에서 부탁을 받아 마을에 선물(지난겨울 이화여대 학생들이 재방문하면서 남긴 추억 앨범)을 전달하고, 귀

국해서 학교 운영 소식을 알려주고자 현지의 마리아 엘레나 교수와 함께 마을을 네 차례 방문했다. 이는 단순히 상호문화주의 자치학교를 관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라,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산 이시드로의 자치 학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컬에만 갇혀서 학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다 넓은 치아파스의 역사와 지역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어서는 상호문화주의 및 자치에 대한 요구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치아파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2014년 여름 필자가 네 차례에 걸쳐서 마을을 방문하면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것을 중심으로 산 이시드로 마을과 상호문화적 교육 및 자치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치아파스, 사파티스타민족해방전선, 토지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치

치아파스 지역 자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사회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파티스타나 부사령관 마르코스라는 이름에는 친숙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정점으로 초국적으로 자행되는 멕시코 원주민에 대한 수탈에 반기를 들고 대대적으로 일어난 움직임이 바로 사파티스타민족해방전선의 운동이다. 멕시코에서 치아파스 주는 오아하카 주 다음으로 원주민 인구 비율이 높으며, 전국적으로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더불어 평균 교육 년 수 역시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진다. 치아파스는 인종적·계층적·사회적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배제 상태에 놓여 있다.

원주민이 받은 차별과 수탈은 몇몇 통계 수치로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비단 1994년 이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기원은 500년 전에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한 것에 있다. 19세기 라틴아메리카와 멕시코의 독립은 원주민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크리오요 위주로 이뤄진 독립과 국민 국가의 건설에서 원주민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원

주민의 역사 또한 묵살되었다.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10년 수많은 멕시코인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찾았지만 이 멕시코혁명조차도 치아파스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수입대체산업화의 경우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농업 부문의 희생을 강요했고, 경제적 기반이 농업에 있는 치아파스의 경우 당연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80년대에는 외환위기가 터졌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구조조정과 초국적 시장의 개방이었다. 사파티스타가 자신들을 500년 투쟁의 역사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경제의 세계화가 이 지역에 미친 영향은 유난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이제는 제발 그만해라’(Ya Basta)라는 구호로 복면을 쓰고 응당 누려야 할 자신들이 터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1994년부터 20년도 더 흐른 지금, 정부와 마찰로 빚어진 폭력적인 국면은 소강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공동체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자치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사파티스타민족해방전선의 더 이상 그만이라는 외침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촉매제가 되어주었으며, 국내외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서 치아파스 전 지역에서 자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나갔다. 필자가 이번 여름 주로 머물며 답사를 했던 산크리스토탄의 경우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 중에는 CIESAS, UNACHI, ECOSUR와 같은 공립대학들뿐만 아니라, 사파티스타대학교라고 부르는 CIDECI-Unitierra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CIDECI-Unitierra에서는 지역의 자치에 대한 각종 학술 연구와 프로젝트, 세미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대학에서 벌어지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마을 자체적으로, 혹은 마을과 연계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포럼 중 지역발표

필자 역시 사파티스타 대학교에서 3일 동안 열리는 치아파스 여성 인권과 토지의 권리에 대한 포럼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본 포럼에서는 지리적인 장벽으로 그간 모이기 힘들었던 치아파스 전역의 공동체 주민 대표를 모아



전체 참가자의 회합

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공동체와 가정, 여성에게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워크숍을 가졌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주민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포럼은 초칠어, 첼탈어, 스페인어로 진행되었는데, 논의의 핵심에는 언제나 어머니와 같은 땅(Madre Tierra)가 있었다. 사파티스타 진영뿐만 아니라 자체를 주장하는 여러 공동체에서 대안적인 교육은 자치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찾기가 핵심적인 요소로서 논의되었다. 치아파스에서 자치 운동은 단순히 사파티스타의 상징화된 사회 운동이나 학문의 수사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주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흘러나오는 것이며 실천적인 것임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 산 이시드로 마을

산 이시드로 마을은 치아파스주 시난칸탄(Zinacantán)에 소속된 작은 공동체이다. 산 크리스토팔에서 승용차로는 25분이면 도착하지만, 구불구불 산을 타고 난 도로를 돌고 돌아 비포장도로를 덜덜거리며 한참 내려간 뒤에야 마을 광장이 보인다. 총 42개의 가구가 마을을 꾸리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은 옥수수 농사를 짓는다. 마을이 작다 보니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다가 당연히 울타리나 담벼락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다. 마을에서 주로 들리는 언어는 초칠어인데 스페인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주

민도 많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강한 초칠 어 억양이 묻어난다.

필자를 이 마을로 데려다준 마리아 엘레나 교수에 따르면, 정치적인 노선의 차이와 자치 학교의 설립을 두고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서 2010년에만 해도 마을에 긴장감이 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방문했을 당시 마을 모습은 매우 평화롭게만 보였다. 파란 하늘에서 따스한 햇볕이 내리 쬐니 마을의 여인들은 아이를 데리고, 아니면 수놓을 거리를 들고 풀밭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소나기라도 내리면 아이어른 할 것 없이 깔깔거리며 오두막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며 담소를 나눈다. 마을에 행사가 있거나 공동으로 작업을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새참을 나눠먹는다. 간식으로 큰 솔에다 커피랑 설탕을 한 사발 부어 펄펄 끓여 딱딱한 설탕 빵을 찍어먹는다. 부엌에서는 음식 솜씨 좋은 아주머니들이 닭고기를 넣은 음식 몰레를 만들고, 한 쪽에서 누군가는 토르티야를 구워 포에 싸서 온기를 유지한다. 그럴 동안 마을의 어른은 어린 아기를 안고 울음을 달래는데, 그새 메추리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와 모닥불을 쬐다.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러한 전통적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고유의 문화와 자치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을 주민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짧은 방문 와중에서도 산 이시드로에서는 자치 학교 말고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여기 저기서 엿볼 수 있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마을에서 직접 만든 독립방송국이다. 마을을 처음 방문하던 날 사무실에서 포르투갈어가 들리기에 의아해하며 들어갔더니, 브라질 박사과정 학생이 마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스마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은 정보통신을 전공하고 있는데, 박사논문의 일환으로 마을 사람들과 ‘라디오 인데펜덴시아’라는 마을 방송국을 만들고 있었다. 휴대폰 신호 한 줄도 뜨지 않을 만큼 고립된 마을에서 독립방송국을 열어 주변 마을에 소식을 전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꾸준히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형광등도 달리지 않은 방에서 낡은 컴퓨터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방송기기를 설치하긴 했으나, 소리가 지직거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산 크리스토팔까지 마리아 엘레나 교수가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며 부품을 바꾸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이 성공적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 같은 것을 해서 뭐하나 하며 똥하던 사람들까지 큰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했다.

3. 에밀리아노 사파타 자치 학교

자치와 관련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무래도 마을의 꽃은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에밀리아노 사파타 자치학교

인 듯하다. 2009년 이화여대 학생들과 이영민 교수가 처음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마을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아 토요일 학교를 연 것이 지금 학교의 시작이라고 한다. 많은 아이들이 초칠 어 밖에 하지 못해서 미술 활동과 놀이를 하는 수업부터 진행했다. 물론 일부 학부모는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온다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했으나,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금의 모습과 흡사한 학교가 세워진 것은 2011년으로 CIESAS와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두어 공식적으로 마을 학교가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상호문화주의란, 주류 세력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다문화주의와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우선 주체가 원주민과 같이 권력관계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문화의 동화를 지양하고 오히려 문화들 사이의 차이 심지어 다른 문화 사이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긴장 역시 상호문화주의의 일부로



독립방송국 설치 성공 후

받아들인다.

마을을 두 번째로 방문하던 날에 가을학기 개학식이 열렸다.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농번기에 무더운 옥수수 밭으로 일을 하러 갔던 학부모까지 곱게 수놓은 전통 의상을 차려 입고 학교로 모여들었다. 개학식에서는 시작으로 마을 어른이 가톨릭과 마야의 전통이 혼합된



개학을 알리는 마야 전통 의식

의식을 치렀는데, 형형색색 꽃을 뿌리고 네 방향으로 돌아서며 기도했다. 본 의식은 전 이장이 과테말라 북부까지 가서 복원해온 의식인데, 마을의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의례로 시작한다고 한다. 참가자의 진지함에서 학교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개학식이 끝나자 필자도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전달하고, 축사로 산 이시드로 학교가 이렇게 무사히 개학하여 기쁘다고 얘기했다.

수업은 특별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목표에 부합하며,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다시 되돌아보는 수업을 추구한다. 수업의 방식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은 한국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데, 칠판도 있고. 세계 어디를 굴러다니다가 왔는지는 모르겠는 교과서와 책이 교실 뒤편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보조 자료이지, 수업은 책에 매몰되지 않고, 마을에서의 생활과 직간접적인 연관성 속에서 시작한다. 가령 바구니를 만드는 수업을 할 때, 바구니를 만든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물 수업을 하고, 바구니를 언제부터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역사 수업을 하는 식이다.

일종의 교사 역할을 하는 도우미 선생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필요할 때면 마을의 어른을 모셔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는다. 상호문화주의 교육에서 과학적인 지식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살이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현재 학교는 일종의 유치원,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 그리고 생가지 얼마 되지 않은 중학교로 나뉘져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등교육까지 마쳐 마을에서는 최종 학력이 높은 순이 담당하고 있다. 초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워크숍 식의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이들은 영구적으로 마



교실 풍경

을에 머물 수 없으며 마을의 사정을 잘 모르기에 지역 어른들이 마을 출신의 순을 선생님이로 추천하게 되었다. 한편 그의 아내 순카는 유치원 수준의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가르친다. 부부가 이렇게 동시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자치 학교 도우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생업에 차질이 빚게 되었는데, 이화여대 이영민 교수가 이 부부 교사를 지원하여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는 학생이 생기자, 상위 과정의 수업을 듣고 싶다는 요구가 생겼다. 중학교 학생은 나이가 매우 다양하고, 집에서 농사를 짓거나 다른 생업으로 바빠 매일 학교에 가는 일정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일주일은 수업은 하고 일주일엔 생업에 종사하며 한 학기를 마친다고 한다. 또한 고정적으로 중학교를 담당할 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워 여기저기서 한 학기 단위로 자원봉사자를 받아 워크숍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2014년 1학기에는 프랑스에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한 학기 동안 머무르며 친환경 비누만들기와 같은 일상생활 밀착형 수업을 하기도 했으며, 프랑스어도 가르쳤다고 했다. 반대로 주민들은 프랑스인 봉사자에게 초칠 어를 가르쳤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막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는데, 대학 때 배운 친환경 농업을 가르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배울 때 사용하던 시설과 도구가 부족해서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어 돌파해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이들이 추구하는 상호문화교육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

학교 개학을 앞두고 수업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에 필자도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한국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4. 나가며

산 이시드로 공동체는 상호문화주의라는 교육 철학을 통해서 한계가 많은 공교육의 차별과 배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멕시코에서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일으킨 43명의 교대 학생 실종 사건만 해도 교육개혁으로 인한 문제점과 농촌지역의 불평등 문제 등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적인 대안 교육은 기존의 교육의 한계를 로컬의 맥락에서 조금씩 풀어나갈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마을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진심을 다해 필자를 맞아주었다. 그들의 따스한 부엌으로 초대해서 일상을 불편함 없이 공유했으며, 막 익은 복숭아를 한 아름 따다가 돌아가는 길에 안겨주었다. 이처럼 자신의 문화를 지키되 외부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기에 진정한 의미의 상호문화적인 교육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실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상호문화주의 기반 자치학교가 번창하기를 기원해본다.

조영지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